

## 제4강 섹스와 젠더를 이원화하기: 주디스 버틀러

### 1. 앞 강의의 내용들

- 솔라미스 파이어스톤: 성의 변증법(1970)
  - ✓ 성계급
  - ✓ 마르크스와 엥겔스 다시 쓰기
  - ✓ 생물학적 성, 낭만적 사랑, 출산
  - ✓ 과학기술을 통한 성혁명
  
- 케이트 밀렛: 성의 정치(1970)
  - ✓ 남성과 여성, 남성동성애적 성행위의 정치성
  - ✓ 남성문학작품 분석-비판하기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1995)
  - ✓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인 성적 상호 작용
  - ✓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로 유지되는 여성의 종속
  - ✓ 매매춘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을 보여주는 극단의 사례
  
- 캐서린 맥키논(1993)
  - ✓ 포르노그래피 규제
  - ✓ 여성을 성적 객체, 사물, 상품으로 비인간화하는 것을 포함, 여성의 노골적인 성적 복종을 사진이나 말을 통해 표현하는 시각물
  
- 게일 루빈(1982)
  - ✓ 섹스/젠더 체계
  - ✓ 페미니즘 진영에 섹슈얼리티 이론 개발과 체계화 촉구
  - ✓ 페미니즘 내부의 성보수주의적 경향 비판
  - ✓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통일화 거부
  
- 주디스 버틀러(1990)
  - ✓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 ✓ 여성들은 누구인가?
  - ✓ 젠더의 수행성, 규범성: 담론적 구성물로서 젠더
  - ✓ 섹스/젠더 이분법 해체, 정체성 해체
  - ✓ 근친상간금지의 규칙은 이성애 결혼제도를 영속화시키는 장치
  - ✓ 동성애는 이성애의 구성정 외부: 강압적 이성애는 동성애를 부인하게 만들어 그 상실을 우울증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합체하기 때문

## 1. 주디스 버틀러

- 미국의 철학자이자 젠더 이론가
- 정치 철학, 윤리학, 여성주의, 퀴어 이론, 문학 이론에 영향을 주었음
- 1993년부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어서 강의
- 비교문학부와 비평이론 프로그램의 맥신 엘리엇 교수(Maxine Elliot Professor)이자 European Graduate School의 Hannah Arendt Chair
- “젠더 트러블”에서 버틀러는 젠더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도전하고 젠더 수행성 이론을 발전
- 여성, 퀴어 연구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 혐오표현 역시 버틀러의 주요관심사 중 하나로 버틀러는 맥키년이 여성을 피해자라는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타자로 재현했다는 점에서도 비판했으나 맥키년의 포르노그래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비판했다.
- 그러나 버틀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어떤 이들은 버틀러의 독특한 글쓰기(난해하고 난해한)를 지적하며 버틀러를 엘리트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버틀러가 젠더를 ‘그저 담론’으로 혹은 언어의 차원으로 축소시켜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 2. 책의 핵심내용과 목차

-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에서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가능성 제기
- 섹스/젠더의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 정치학에 도발적으로 문제제기
- 젠더를 불변의 것으로 간주하면서 젠더화된 삶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페미니즘의 인식 자체가 습관적이고 폭력적인 전제이며, 이런 전제 하에 배제되는 삶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음
- 1부 섹스/젠더/욕망의 주체들에서 버틀러는 페미니즘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모색하며 루스 이리가레나 모니크 위티그를 독해하면서 이들의 기여와 한계점을 밝힘. 2부에서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비판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부분적으로 수용. 3부에서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모성적 몸과 기호계 논의를 비판하고, 위티그나 푸코 논의의 장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자신의 논의 정리.

## 3. 주요 내용

### 3.1. 책을 쓰게 된 배경

-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론이 우세한 이론적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의 양상은 둘로 분기
- 하나는 복수적이고 이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주체성을 문제 삼아 이미 여성이라는 공통의 범주마저도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또 해체되는 전략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
- 다른 하나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에서의 여성 억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 결속의 기반을 위한 본질론적 여성 주체가 필요하다는 입장
- 1989년 나는 페미니즘 문학 이론에 널리 확산되어 있던 이성애적 가정을 비판하는 데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젠더의 경계와 타당성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젠더의 의미를 남성성/여

성성의 기존 개념으로 한정 짓는 이런 관점들을 반박할 방법을 찾던 중이었다. 젠더의 의미를 그 관행적 의미로만 한정한 페미니즘 이론은 모두 페미니즘 안에서 배타적 젠더 규범을 설정하고, 그것이 때로는 호모포비아를 낳는다는 게 그때 나의 입장이었고, 지금의 내 입장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이 새로운 위계와 배제형식을 만들어내는 특정 젠더의 표현물을 이상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특히 나는 특정 종류의 젠더 표현물은 거짓이거나 변종이고, 다른 종류는 진짜이거나 원본으로 입증되었다고 규정하는 이런 진리체계에 반대했다.

- 이 책의 요점은 독자들에게 모델이 되어줄, 새롭게 젠더화된 방식의 삶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 그보다는 어떤 종류의 가능성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으면서 젠더 가능성이라는 장을 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혹자는 '가능성을 연다'는 것이 결국 어떤 효용이 있냐고 의심스러워하겠지만, 이 사회계에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법적이며, 실현할 수 없고, 비현실적이며, 위법적인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 이 책은 젠더화된 삶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 자체가 습관적이고 폭력적인 전제로 인해 배제되는 방식들을 보여주고자 했다. 책은 또한 소수자 젠더와 섹스의 실천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리 담론을 휘두르려는 모든 시도들의 뿌리를 파헤치고자 했다. ... (이런 시도를 행하는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실천들을 대면했을 때 당혹감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방식들이었다. 가령 젠더 이분법의 붕괴는 것처럼 쇼킹하고 공포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젠더를 생각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명백히 배제되고 스스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이런 전제들 중 몇가지는 이 시대 '프랑스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것에서 발견되었다. ... 나는 비록 성차 근본주의의 핵심에 놓인 이성애주의에 반대하지만, 내 주장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를 끌어오기도 했다. ... 사실 내 논지의 요점은 후기구조주의를 페미니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들을 특별히 페미니즘적인 재공식화 아래 두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이 책에 표면화된 프랑스 중심주의는 실제 프랑스나 프랑스 내 이론의 생명과 현격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은 통합적인 맥락에서 그다지 서로 연관성이 없고, 설령 있다해도 프랑스 독자들은 거의 같이 읽지 않는 여러 프랑스 지성들을 함께 읽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 지적 난삽함은 이 책을 '미국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프랑스의 맥락에서는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 프랑스 이론이 이책에서 유일한 언어는 아니다. 이 책은 프랑스 페미니즘과의 오래된 연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의 특성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친족에 관한 게일 루빈의 특수한 작업, 드래그에 대한 에스더 뉴턴의 최초의 연구, 모니크 위티그의 뛰어난 이론서나 소설 그리고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들과의 오랜 연계 속에서 등장한다.
- 1980년대의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레즈비언-페미니즘에서 레즈비어니즘과 페미니즘이 서로 만난다고 가정하는 반면, 이 책은 레즈비언 실천 행위가 페미니즘 이론을 증명한다는 관념을 거부하고, 나아가 이 두 용어 간에 더 문제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이 책에서 레즈비어니즘은 여성이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성을 희생하지도, 여성 중심의 세계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레즈비어니즘은 일련의 정치적 신념이 성애적으로

완성을 거둔 것이 아니다(섹슈얼리티와 신념은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간에 자주 불화를 일으킨다).

- 대신 이 책은 묻고 있다. 어떻게 비규범적 성의 실천들이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특정한 성적 관행이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인지를 강제하게 되었는가? 만일 젠더가 더이상 규범적인 섹슈얼리티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퀴어의 맥락에서 특정한 젠더가 존재하는가?
- 게일 루빈을 읽으면서 규범적 섹슈얼리티가 규범적 젠더를 강화한다는 주장을 확립하고자 했다.
- 나는 카프카의 "법 앞에서"에 대한 데리다의 독법에서 젠더의 수행성을 어떻게 읽을지 단초를 얻었다. 어떤 사람이 법을 기다리며, 법의 문 앞에 앉아 자신이 기다리는 법에 어떤 힘을 부여하고 있다. 권위적인 의미에 노출되리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권위가 부여되고 설정되는 수단이다. 이런 기대가 그 대상에 마법을 거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젠더에 관해서도 비슷한 기대를 하며 연구하는 게 아닌지 꽤 궁금했다. 젠더가 곧 드러나게 될 어떤 내적 본질로 작동하고 있다는 기대, 젠더가 기대하는 바로 그 현상을 결국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말이다.
- 젠더가 수행적이라는 관점은, 우리가 젠더의 내적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련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젠더화된 몸의 양식화를 통해 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내적'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정한 몸의 행위, 극단적으로 말해 당연시된 제스처의 환각효과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생산해낸 결과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 우리가 드래그에서 트랜스섹슈얼리티로 모범적 예를 바꾸게 된다면 몸을 감싸고 표현해주는 옷에서 안정된 해부학 구조에 대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몸은 작동 이전의 것, 전환적인 것, 혹은 작동 이후의 것이 된다. 몸을 '본다'는 것조차 사람이 무엇을 볼 때 왜 이를 통해서 보는 범주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이 보는 몸을 확실히 읽어내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조용하고 일상적인 문화적 지각이 실패하는 순간, 즉 자신이 보고 있는 몸을 확실히 읽어낼 수 없을 때가 바로 자신이 만난 몸이 남자의 몸인지 여자의 몸인지를 더이상 확신할 수 없는 순간이다. 범주들 간의 동요 자체가 문제의 몸의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다.
- 이런 범주들이 의문시될 때 젠더의 실제 또한 위기에 몰린다. 실재를 비실재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불분명해진다. ... 이는 우리가 '실재'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젠더의 지식으로 소환한 것이 사실상 변화되고 수정될 수 있는 실제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 이런 변화는 젠더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산, 재생산되며 젠더의 가능태는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기본 범주를 재고해볼 것을 촉구한다.
- 이 책의 요점은 드래그를 진정한 모범적인 젠더의 표현물로 치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당연시된 지식이 실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력적인 경계선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젠더 규범(이상적 이분법 형태론, 몸의 이성애적 상보성, 적합하고 부적합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상과 규칙, 이종잡혼에 반대하는 순수성과 금기의 인종적 코드로 강조되는 많은 것들)이 인식 가능한 인간이 무엇인지 또 '실재'로 간주될 것과 간주되지 않을 것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한, 젠더 규범은 어떤 주어진 합법적 표현물이 될 존재론의 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 이 책에 확실히 규범적인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 비실재, 인식불가능으로 간주되어온 몸들

에게 합법성을 확대하려는 주장일 것이다.

- 젠더의 의미를 둘러싼 현대 페미니즘 논쟁은 이 시대를 이끌다가 다시 특정한 의미의 트러블(난관)에 도달했다. ... 그러나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이처럼 부정적인 가치를 수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지배적인 법은 트러블로 우리를 위협하고, 심지어 트러블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이 모두가 우리를 트러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트러블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최고의 트러블을 일으킬 것인지, 또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결론짓게 되었다.

#### 1) 페미니즘 주체로서의 '여성들'

- 대체로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범주'를 통해 이해되는 어떤 현존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가정해 왔다.
- 그 여성의 범주는 담론 안에서 페미니스트의 이익과 목표를 창출해낼 뿐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재현이 추구하는 주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 하지만 정치성과 재현은 논쟁적인 용어들이다. 재현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여성 주체의 가시성과 합법성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한 용어로서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범주를 둘러싼, 진실이라는 믿음을 알리거나 왜곡한다고 평가하는 규범적 언어의 기능을 한다. 페미니즘 이론 안에서 여성을 완전히 혹은 적절하게 재현하는 언어의 개발은 여성의 정치적 가시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왔다.
- 최근 페미니즘 이론과 정치성 사이에 펼쳐진 이러한 전체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페미니즘 담론 내부로부터 도전
- 여성이라는 주체는 더이상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용어로 생각되지 않는다. 재현되거나 실은 해방되어야 할 궁극적 후보인 '주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의문시하는 자료도 많았을 뿐 아니라, 무엇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구성하고 또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합의도 거의 없었다.
- 정치적이고 언어적인 '재현'이 허락되는 범주는 주체 자신이 형성되는 기준을 미리 세우고, 그 결과 재현은 주체로 승인될 수 있을 만큼만 펼쳐진다. 다시 말해, 재현이 펼쳐지려면 우선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 푸코는 권력의 사법체계가 주체를 생산해내며, 그 주체들은 그 결과로 사법체계가 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 ...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철회할 수도 있는 선택적 시행을 통해 정치제와 연관된 개개인을 제한, 금지, 규제, 통제하고 심지어 '보호'함으로써 ... 체제에 의해 규제된 주체들은 그 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의 필요조건에 따라 형성되고 정의되고 재생산된다. 이 분석이 옳다면 여성을 페미니즘의 '주체'로 재현하는 언어와 정치학의 사법적 구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담론적 구성물이자 당면한 재현 정치학의 결과일 것. 그리고 페미니즘 주체는 자신이 해방시켜야 할 바로 그 정치체계에 의해 담론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명된다.
- 주체의 문제는 정치학, 특히 페미니즘 정치학에서 중대한 문제다. 사법적 주체라는 것은 정치학의 사법적 체계가 굳어지면 필경 '보이지 않는' 어떤 배타적 관행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체의 정치적 구조화는 특정한 합법화의 목표, 배타적 목표를 갖고 진행되는 것이며, 이 정치적 조작은 사법 권력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는 정치적 해석이 있기에 효과적으로 은

폐되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사법적 권력은 자신이 그저 재현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정치학은 권력의 이중적 기능, 즉 사법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에 유념해야 한다.

- 사실상, 법은 '법 앞의 주체'라는 관념을 만들어 내고는 은폐해버린다. ... 여성이 어떻게 언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완전하게 재현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페미니즘 비평은 페미니즘 주체인 '여성들'의 범주가 해방을 추구하는 바로 그 권력체계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구속받는지도 알아야 한다.
- 주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근본주의적 허구를 일단 제쳐 두더라도 여성들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가정에 있어 페미니즘이 부딪히는 정치적 문제가 있다.
- 여성들은 복수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하고 재현하려는 사람들의 합의를 모은 견고한 기표라기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많은 용어, 논쟁의 장,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 데니즈 라일리의 책. 『나는 내이름인가?』. 실제로 이름이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 어떤 사람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용어는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 젠더는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담론적으로 성립된 정체성의 인종적, 계급적, 민족적, 성적, 지역적 양상들과 부단히 마주치기 때문이다. 젠더를 정치적, 문화적 접점에서 분리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젠더는 늘 바로 그 접점에서 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페미니즘에 분명 어떤 보편적 원리가 있으리라는 정치적 가정, 그리고 그 원리는 문화적 교차로 나타나는 어떤 정체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정치적 가정은 ... 여성의 억압이 보편적 체제나 가부장제, 혹은 남성 지배 구조에서나 발견되는 어떤 유일한 형태라는 생각을 수반하기도 한다. 최근 보편적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젠더 억압이 존재하는 실제의 문화적 상황에서 젠더 억압의 행위들을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비판받고 있다. ... 어떤 보편적인 원리의 '실례'나 '본보기'를 찾아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 재현해야 한다는 페미니즘 스스로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보편적 위상을 세워야 한다는 급박한 요구는 종종 지배구조의 범주적이거나 허구적인 보편성을 손쉬운 지름길로 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피지배 경험이라는 여성의 공통성을 만들었다.
-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이원구조는 각각의 고유성이 인식될 수 있는 배타적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온갖 다른 방식으로 여성적인 것의 '특성'을 다시 한번 완전히 맥락에서 분리하여 계급, 인종, 민족성 및 다른 권력 관계들의 축들과 분석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때 이 계급, 인종, 민족성, 권력관계의 축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단일한 정체성 개념은 잘못된 명명으로 만들어버린다.
- 페미니즘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일관되고 안정된 주체로 확립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젠더 관계를 규제하고 물화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물화야말로 페미니즘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닐까? 여성이라는 범주는 이성애적 모태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안정성과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 (그러므로) 나는 페미니즘 주체에 전제된 보편성과 통일성이, 주체가 작동되는 담론의 구속력 때문에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 실로 이음새 없는 여성의 범주로 생각되는 안정된 페미니즘의 주체를 어설프게 주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여성 범주를 받아들이는 데 적잖은 거부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배타적인 영역은 심지어 그 구성이 해방의 목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었따 하더라도 그 구성의 강압적이고 규제적인 결과를 드러낸다.
- 페미니즘 내부의 파편화나, 페미니즘이 재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반대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은 정체성의 정치학이 갖는 필연적인 한계를 시사한다. 페미니즘이 스스로 구성한 주체에 대해 더 폭넓게 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로, 페미니즘 자체의 재현 주장이 갖는 구성의 힘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페미니즘의 목표가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명백히 페미니즘의 정치적 과제는 ... 언어와 정치의 사법구조로 구성된 권력의 틀 안에서 정체성의 범주에 대한 비판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대의 사법구조가 생산하고 당연시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든 정체성에 대한 비판 말이다.
- 페미니즘은 이 지점에서 페미니즘의 정치적 실천 속에서 정체성의 존재론적 구성을 근본적으로 재고해보는 일이 꼭 필요해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획일적이고 영속적인 토대를 구축할 필요성으로부터 페미니즘을 해방시킬 급진적 비평을 즐길 때도 된 것 같다.
- 페미니즘의 법적 주체로 간주된 것을 생산하고 또 은폐하는 정치적 작용을 추적하는 일은 바로 여성 범주의 페미니즘 계보학이 말아야 하는 과제이다. 페미니즘 주체로서의 '여성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노력에 '여성' 범주를 당연한 듯 끌어오는 것은, 재현 정치학으로서의 페미니즘 가능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도 있다. 주체에 대한 말 없는 규범적 요구에 따르지 못한 이들을 배제해서 구성된 주체들로 재현을 확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재현이 정치학의 유일한 초점이 도리 때 어떤 지배와 배제의 관계가 자기도 모르게 지속되는 것일까? 만일 이 주체의 형성이 그런 토대를 주장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은폐된 권력의 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페미니즘 주체의 정체성이 페미니즘 정치성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페미니즘에서 '재현'이란 아마도 '여성' 주체가 그 어디에서도 가정되지 않을 때에만 의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섹스/젠더/욕망에 강제된 질서

- 섹스/젠더 구분의 함의와 초래할 질문들
- 가끔 여성의 정체성에 결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여성'이라는 분명한 통일성을 끌어오기는 하지만 페미니즘 주체에 균열이 시작된 것은 섹스와 젠더의 구분 때문이다.
- 원래 '생물학은 운명'이라는 공식을 논박할 의도였던 섹스와 젠더 간의 구분은, 섹스가 어떤 불굴의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던 젠더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공헌했다. 따라서 젠더는 섹스의 인과론적 결과도 아니고 섹스처럼 외형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다. 젠더를 섹스의 다양한 해석 중의 하나로 보는 이러한 구분 때문에 주체의 통일성은 이미 잠재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 젠더가 성별화된(sexed) 몸을 갖고 있다고 가정되는 문화적 의미라면, 어쨌든 젠더가 섹스에서 따라나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리적 극한으로 밀고 가면, 섹스/젠더의 구분은 섹스로 결정

된 몸과 문화로 구성된 젠더 간의 극단적 단절을 시사한다.

- 이분법적인 섹스의 공고함을 잠시 가정하기는 하지만, 이 구분이 '남성'의 구성은 전적으로 남자의 몸에 속하고, '여성'의 구성은 여자의 몸만 이해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 게다가 양성의 형태학이나 그 구성상의 이분법으로 두 개의 섹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젠더 또한 둘이어야 한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 이분법적 젠더 체계의 전제는 은연 중에 젠더가 섹스를 모방하는 관계라는 생각, 그에 따라 젠더는 섹스를 반영하거나 혹은 섹스의 규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안고 있다.
- 구성된 젠더의 위상이 섹스와 완전히 별개라고 이론화되면 젠더 자체는 자유롭게 떠도는 인공물이 된다. 그 결과 남자와 남성적인 것은 남자의 몸을 의미하는 만큼이나 쉽게 여자의 몸을 의미할 수 있고, 여자와 여성적인 것은 여자의 몸을 의미하는 만큼이나 쉽게 남자의 몸을 의미할 수도 있다.
- 젠더화된 주체의 이런 극단적 분열은 다른 문제도 야기한다. ... 섹스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적인 것인가, 해부학적인 것인가, 염색체인가, 호르몬인가? 섹스에는 역사가 있는가? 각각의 성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다른 역사를 갖는 것인가? 성의 이원성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는 있는가? ... 섹스가 불변의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 논쟁선상에 있다면, 아마도 '섹스'라 불리는 이 문화적인 구성물은 젠더만큼이나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였을지도 모른다. 그 결과 섹스와 젠더는 전혀 구별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 이렇게 되면 젠더라는 것 역시 재고가능
- 섹스 자체가 젠더화된 범주라면 젠더를 섹스의 문화적 해석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젠더를 이미 정해진 섹스에 문화적 의미를 각인한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젠더는 섹스 자체가 설정되는 바로 그 생산장치를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섹스가 자연에 관계되듯 젠더가 문화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젠더는 '성적으로 구분된 자연'이나 '자연적 섹스'가 '담론 이전'에, 문화에 앞서서, 그 위에서 문화가 행해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표면으로 생산되고 설정되게 하는 담론적/문화적 수단이기도 하다.
- 섹스 역시 담론의 결과이나, 젠더라 지칭되는 문화적 구성장치가 섹스를 담론 이전의 것으로 생산하고 있다.
- 따라서 젠더 공식의 수정이 필요하다.

3) 젠더-현대 논쟁에서 돌고 도는 잔해들(섹스는 담론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젠더의 효과이다.)

- 젠더가 구성된다는 개념은 해부학상 서로 다른 몸에 각인된 젠더의 의미라는 어떤 결정론을 시사하며, 거기서 몸은 냉혹한 문화적 법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자로 이해된다.
- 이처럼 젠더를 '구성'하는 바로 그 '문화'가 하나, 혹은 일련의 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다면, 젠더는 "생물학은 운명이다"라는 공식에 따라 결정되고 고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생물학이 아닌, 문화가 운명이 되는 것이다.
-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



- 보부아르는 여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나 그녀의 책에서 여성은 언제나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적 강제 상황 아래에 있다.
  - 보부아르에게 젠더는 '구성된' 것이지만 그녀의 공식에는 어떤 행위주체 즉 어쨌든 젠더를 걸치거나 전유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다른 젠더도 걸칠 수 있는 코기토가 암시되어 있다.
  - 보부아르에게 여성이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강제적 상황은 '섹스'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녀의 설명 어디에도 여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반드시 여자라는 확언은 없다.
  - 보부아르의 주장대로 "몸이 하나의 상황"이라면 언제나 이미 문화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몸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섹스는 담론 이전의 해부학적 사실성으로 볼 수 없다. 사실, 섹스는 그 정의상, 지금까지 줄곧 젠더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 몸은 문화적 의미가 각인되는 수동적 매개로 나타나거나, 또한 몸에 대한 전유나 해석의지는 그 자체로 문화적 의미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건 몸은 단순한 수단이나 매개로 여겨지는데, 이 수단이나 매개에 대한 문화적 의미는 오직 외적으로만 관련된다. 그러나 젠더화된 주체의 영역을 구성하는 무수한 '몸들'이 그러하듯, 이 '몸'도 그 자체로 하나의 구성물이다.
- 
- 이리가레와 보부아르
  - 어떤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젠더가 개별적인 속성이 아니라 '관계'이며, 실은 '일련의 관계들'이라고 주장한다.
  - 또다른 이론가들은 보부아르를 따라 여성적 젠더만이 표시되며, 보편적인 인간과 남성 젠더는 혼용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여성은 여성이라는 성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반면, 남성은 몸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성을 가진 존재로 찬미된다.
  - 뤼스 이리가레는 논의를 좀 더 복잡하게 끌고 가 여성들이 정체성의 담론 자체 내부의 모순은 아닐지라도, 어떤 역설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하나의 '성'이 아니다. 대체로 남성적이고 남근로고스 중심적인 언어 안에서 여성들은 재현 불가능성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그에 대한 사고가 불가능한 성, 언어의 부재나 불투명성을 대표한다. 뜻이 명료한 일의적 의미화에 기초한 언어 안에서 여성의 성은 규정 불가능성이나 지칭 불가능성을 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들은 '하나'가 아닌 다수의 성이다.
  - 여성을 타자로 지목하는 보부아르에 반대하면서, 이리가레는 주체와 타자 모두가 폐쇄된 남근로고스 중심의 의미화 경제의 남성적인 버팀목이라고 주장한다. 그 닫힌 질서는 여성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전체화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 보부아르에게 여성은 남성의 부정태이자 남성적 정체성이 스스로를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어떤 결핍. 반면 이리가레에게는 바로 그 특정한 변증법 자체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화 경제를 배척하는 체계를 구성한다.
  - 이리가레는 여성적인 '성'이 언어의 부재지점, 문법적으로 규정된 실체의 실현 불가능성, 따라서 그 실체야말로 남성적 담론의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환영이라는 것을 폭로하려 했다. 이러한 부재는 남성적 의미화 경제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의 성은 표시되는 반면, 남성의 성은 표시되지 않는다는 보부아르의 논의를 뒤집는 주장이다.
  - 이리가레에게 여성의 성은 남성적인 주체를 내재성이나 부정성으로 규정한 '결핍'이나 '타자'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성은 재현의 필요조건 자체를 벗어난다.

- 갈등하는 주체와 젠더의 입장을 모두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런 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 젠더의 의미에 대해서 실상 젠더가 지금 논의되어야 할 용어인지, 아니면 섹스의 담론적 구성이 더 근원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그것이 여성들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 혹은 남성들인지 남성인지 첨예한 의견 대립의 결과 '극단적인 젠더 불균형의 관계들'이 생긴 상황에서 정체성의 범주들은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음이 확고해진다.
- 보부아르는 남성 '주체'가 자신을 여성적 '타자'와 구분하고 있는데, 이 타자는 인간됨의 보편적 규범 바깥에 있고, 어쩔 도리 없이 '특수'하며, 육체로 체현되면서 내재성이란 숙명을 지니고 있다.

#### 4) 이분법적인 것과 일의적인 것 이론화하기, 그리고 그 너머

- 이리가레가 남성적 의미화 경제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논리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페미니즘 비평의 범위를 넓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녀의 분석이 미치는 힘은 바로 그 세계적 범위 때문에 약화된다.
- 성차가 발생하는 문화 역사적 맥락의 배열을 횡단하는 독백적이고도 획일적인 남성적 경제를 규명하는 일이 가능한가? 특정한 젠더 억압의 문화 작용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인식론적 제국주의가 아닌가? 문화적 차이들을 자기 동일적 남근로고스 중심주의의 '본보기'로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개선될 수 없는 인식론적 제국주의의 말이다.
- '타자'의 문화들을 세계적 남근로고스 중심주의의 다양한 확대 사례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일종의 전유 행위를 만든다. 그리고 이 전유 행위는 달리 말하면, 그 전체화된 개념이 문제시되었을 차이들을 바로 그 기호 아래 식민화시키면서, 남근로고스 중심주의의 자기 증식 제스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 페미니즘 비평은 남성적 의미화 경제의 전체화된 주장도 탐구해야 하지만, 페미니즘 자체의 전체화 동향에 대해서도 자기 비판적이어야 한다. 적을 단일한 형태로 규명하려는 노력은, 일군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대신 억압자의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하나의 역담론이다.
- 본질주의에 대한 현대 페미니즘 논쟁은 여성 정체성의 보편성과, 다른 여러 방식의 남성적 억압의 보편성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 보편성의 주장은 공통적이거나 공유된 인식론적 관점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은 의식의 표명이나 억압구조에 대한 공유, 또는 여성성, 모성성, 섹슈얼리티, 그리고/또는 여성적 글쓰기라는 그럴듯한 초문화적인 구조 안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세계화된 태도는 ... 여성 범주를 일관화하고 통일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다양성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그 다양성 안에 구체적 '여성들'의 배치가 구성되는데도 말이다.
- '여성'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미리 전제하지 않는 연합의 정치학을 형성하려는 노력들도 있다. ... 연합 형성을 자극하는 분명한 민주적 충동에도 불구하고 연합론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그 과정의 권위자로 세울 수 있다. (연합이 예측불가능한 입장들의 조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연합구조의 이상적 방식을 주장함으로써, 즉 그 결과 효과적으로 통일성을 보장하게 될 어떤 것을 주장함으로써 말이다.
- 완전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 계급, 나이, 민족, 섹슈얼리티라는 구성요소로 채워져야 할 '여

성들의 범주가 있다고 단순 가정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이 범주의 본질적 불완전성을 가정하면 '여성들'이라는 범주는 영원한 의미 논쟁이 가능한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 '통일성'은 효과적인 정치 행동에 꼭 필요한 것인가? 통일성이라는 목표에 대한 성급한 고집이 훨씬 더 심각한 위계 간의 파편화를 가져오는 바로 그 원인은 아닌가?
- 항상 개념적 층위에서 제도화되는 '통일성'의 전제나 목표가 없다면, 일시적인 통일성은 정체성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체적 행동들의 맥락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스트의 행동은 안정되고 통일되고 합의된 정체성으로부터 설정되어야 한다는 강압적 기대만 없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더 빨리 출발할 것이고, 여성이라는 범주의 의미가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더 적합한 것이 될 것이다.
- 젠더는 그 총체성이 영원히 보류되어서, 주어진 시간대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 수도 없는 어떤 복합물이다. 따라서 열린 연합은 당면한 목적에 따라 번갈아 제정되고 또 폐기되는 정체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정의상의 완결이라는 규범적 목적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집중과 분산을 허용하는 열린 집단이 될 것이다.

#### 5) 정체성, 성 그리고 본질의 형이상학

- 철학적 설명에서 무엇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는 거의 언제나 개인의 어떤 내적 자질이 내내 통용되는 자기 동일성이나 연속성을 확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핵심으로 한다.
- 반면 여기서 문제는 이런 것이다. '정체성'은 과연 어느 정도로 경험에 관한 기술적 특질이기보다는 규범적 이상인가? 또한 젠더를 지배하는 규제적 관행은 어떻게 문화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체성의 개념을 지배하는가? 다시 말해 '사람'의 '일관성'과 '연속성'은 그 사람됨의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인 특질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 인식 가능성의 규범들이다. '정체성'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견고한 개념을 통해 확보되는 한 '비일관적' '불연속적'인 젠더 존재의 문화적 등장은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심을 품게 만든다.
- '인식 가능한' 젠더는 어떤 의미에서는 섹스, 젠더, 성 습관 그리고 욕망 간에 일관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한다. 다시 말해 불연속성이나 비일관성이라는 유령들은 ... 다름아닌 법 때문에 계속 금지되고 또 그 법 때문에 생산된다.
- 욕망을 이성애적인 것으로 만들면 '여자'와 '남자'의 표현적 특질로 이해되는 '여성성'과 '남성성' 간의 분명하고 불균형적인 대립이 생산되어야 하고 또 제도화되어야 한다. 젠더 정체성이 인식 가능해지는 문화적 모태는 어떤 특정한 '정체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젠더가 섹스를 따르지 않고, 욕망의 실천이 섹스나 젠더를 따르지 않는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사실 어떤 특정한 '젠더 정체성'은 이러한 문화적 인식 가능성의 규범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역 내부의 논리적 불가능성이나 발달상의 실패로 보일 뿐이다.
- 강제적 이성애 체계와 성정체성 개념을 확립한 담론 범주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정체성이 담론적인 관행의 결과(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이라면, 섹스, 젠더, 성습관, 욕망같은 규제적인 관행들(=강제적 이성애)은 젠더 정체성과 어떤 관계로 구성되게 되는 것인가?
- 프랑스 페미니즘과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스펙트럼 안에서는, 매우 다른 여러 권력체계가 섹스의 정체성 개념을 생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리가레, 푸코, 위티그. 이 설명방식들은 권력의 장에 따라 섹스의 범주를 이해하는 매우 다른 방식들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리가레는 남성적인 성만이 존재. 푸코는 널리 확산된 섹슈얼리티의 규제적 경제체제의 산물. 위티그는 강제적 이성

애 상황에서 성의 범주는 언제나 여성적인 것.

- 이리가레는 서구문화의 관습적 재현체계 안에서 여성은 주체 모델로 이해될 수 없음. 여성들은 차이를 통해, 배제를 통해서만 인지. 주체도 타자도 아니며 이분법적 대립 경제에서 나오는 차이, 남성적인 것을 자기 독백의 산물로 만들려는 책략 그 자체. 핵심은 섹스라는 개념이 패권적 언어 안에서 하나의 본질로, 형이상학적으로 말해 자기 동일적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 이는 어떤 섹스나 어떤 젠더가 '되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는 언어와 담론 수행을 왜곡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리가레에게 문법은 이분법적 관계 모델로 지탱되고 있는 것. 이리가레의 관점으로 보면 남녀의 남성적, 여성적 특성뿐 아니라 남성, 여성을 가정하는 본질적인 젠더 문법까지도 이분법의 실례. 이 실례는 전복적인 다양성의 장인 여성성을 침묵하게 만들면서, 일의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성, 남근로고스 중심주의 담론을 효과적으로 은폐.
- 푸코가 보기에 본질적인 성의 문법은 그러한 이분법의 각 용어에 인위적인 내적 일관성 부여하고 양성 간의 인위적인 이분법 관계 또한 강요. 이러한 섹슈얼리티의 이분법적 규제는 이성애적, 재생산적, 법의학적 헤게모니를 파열시키는 섹슈얼리티의 전복적 다양성 억압.
- 위티크. 성에 대한 이분법적 규제는 강제적 이성애 제도의 재생산이라는 목적 수행. 강제적 이성애주의의 전복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휴머니즘을 여는 길이며 이것은 레즈비어니즘으로 가능. 레즈비언은 성의 범주를 넘어선, 내가 아는 유일한 개념. 위티크의 레즈비어니즘은 본질의 형이상학에 전제된 인본주의적 이상이라는 규범적 약속(남자만이 '사람'이고 젠더는 여성밖에 없는 것, 오직 하나의 젠더만이 존재하고 그것은 여성적인 젠더이다. 남성적인 것은 젠더가 아니라, 남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에 대항하기보다는 그 약속을 더 확실한 것으로 만든다. 인본주의의 모델을 페미니즘의 틀로 확장하는 본질의 형이상학을 고수. 성의 범주 자체를 생산하고 당연시한 것에도 책임이 있는 본질의 형이상학에 동의하는 것이기도.
- 종합해보면,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젠더가 되는 것은 그가 다른 젠더가 아닌 한에서, 즉 이원적 쌍 안에서 젠더 규약을 전제하고 강제하는 하나의 공식 속에서 가능하다.
- 섹스와 젠더는 섹스가 젠더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때만, 섹스가 (이성애적 틀 안에서 다른 젠더와의 대립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변별화하는 지점에서) 욕망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때만 젠더는 섹스, 젠더 그리고 욕망에 관한 경험의 통일성을 의미할 수 있다.
- 이 형이상학적 통일성은 대립적인 이성애 형식으로만 식별되고 표현된다. 즉 섹스, 젠더, 성습관, 욕망 같은 규제적인 관행들이 젠더 정체성과 어떤 관계로 구성되는 가를 정리한 이리가레, 푸코, 위티크의 정리에서 우리들은 '낯은 대치의 꿈'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과 물화되어 있다는 것과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강제적이고 당연시된 이성애 제도는 이분법적 관계의 젠더를 요구하고, 남성적 관점과 여성적 관점을 구분하며, 또한 이성애적 욕망의 관행을 통해 이러한 구분을 가능케 하는 이분법적 관계라고 젠더를 규정한다. 이분법의 두 대립적 요소를 변별화하려는 행위는 각 관점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섹스, 젠더 그리고 욕망 각각의 내적 일관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영속적 본질인 것처럼 '남성'이나 '여성'에 우선권을 주는 일이 없다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젠더 특질들을 본래적인 젠더 존재론의 여러 이차적이고 우연적 특징이라고 무시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영속적인 본질이라는 개념이 허구적인 구성물, 즉 강제적인 속성의 정렬을

통해 일관된 젠더 연쇄로 생산된 구성물이라면, 본질인 젠더나 명사인 남성, 여성의 존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식 가능성의 연속적이고 인과론적 모델에 순응하지 못한 속성들의 불화작용 때문이다.

- 우리는 이제 젠더의 본질적 효과가 젠더 일관성의 규제적 관행 때문에 수행적으로 생산되고 강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본질의 형이상학이라는 물려받은 담론 안에서 젠더는 수행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수행적이라는 의미는 목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 그런 의미에서 젠더는 언제나 행위이다. 비록 그 행위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주체에 의한 행위는 아니지만 말이다. 니체를 인용하면 "행위, 수행, 과정 뒤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행위자'는 그 행위에 부가된 허구에 불과하다. 행위만이 전부이다." 이를 밀고나가 다음의 결과를 선언. 젠더의 표현물 뒤에는 어떠한 젠더 정체성도 없다. 정체성은 결과라고 알려진 바로 그 '표현물' 때문에 수행적으로 구성된다.

#### 4. 쟁점

- 여성 없는 페미니즘은 어떻게 가능할까?
- 그렇다면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 버틀러는 투쟁 혹은 저항을 위한 페미니스트의 연합이 열린 연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열린 연합은 당면한 목적에 따라 번갈아 제정되고 또 폐기되는 정체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정의상의 완결이라는 규범적 목적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집중과 분산을 허용하는 열린 집단이 될 것이다." 버틀러의 제안답게 버틀러의 제안은 추상도가 높다. 이러한 열린 연합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 버틀러는 현실에서의 차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버틀러의 주된 관심은 게일 루빈에게서 영향 받은 성적 지향의 문제와 보수주의적 페미니즘으로 인해 부정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버틀러의 이론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난해하고) 정교하지만 일정정도의 현실과의 괴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